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서울시환경분쟁위원회의 재정신청서를 신청한 목적은
- 첫째로 2007년 4월 본 거주지로 이사한 이후로 수십 차례의 중단 요청에도 층간소음이 그치지 않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 둘째로 특히 소음으로 인해 늘 수면부족에 시달려 매일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며
- 셋째로 대화로만 중단을 요청(1.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통한 시도 2. 관리사무실 직원 대동 중단 시도, 3. 경찰관(2명)과 함께 중단 요청 시도, 4.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직원 내방 중단 요청 시도)을 하였지만 효과가 있기는커녕 더 심하게 층간소음은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 넷째로 신청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신청인이 자행한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집단공동 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과 예의범절을 상기시키고자 함입니다.
- 피신청인의 막무가내식 행동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중단 요청 시도에도 우이독경으로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대화로써 중단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무리인 것으로 사료되며
- 신청인의 고통과 고충을 충분히 감안하여 14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금번 “재정신청서” 접수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아울러 층간소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주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지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저는 ○○아파트 701호에 사는 ○○씨의 사위이며, 저희 가족 총인원은 6인으로, ○○씨(어머님)와 저희 5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아랫집 601호에서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본인(○○)인 대표로 저희 쪽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 사건 진상에 관하여

- 사건 시작일
 - 처음 시작은 2020년 3월 25일~27일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 19로 한참 시끄러운 시기였으며, 저희 막내아들(당시 36개월)이 감기(첨부1, 첨부2)에 걸려 약도 잘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가 밤만 되면 놀아달라고 하여 3일 정도 아동과 놀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때 아동의 발소리가 601호에 들렸었나 봅니다. 이로 인하여 601호 ○○씨가 올라와서 험악한 소리로 떠들지 못하게 하라고 5분 이상 큰소리로 말하고 갔고, 3일 정도를 밤에 아동이 20~30여 분간 뛰는 상황이 있었기에 ‘죄송하다’고 말하고 이후로 아동을 달래며 밤에 이렇게 뛰는 행동을 자제시켰습니다.
 - 36개월 남아에 당시 말을 거의 못해서 [언어검사까지 예약해둔 상태였음-(첨부3)] 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의 순간에 뛰어가는 행동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 그래서 아동이 형 방이나 할머니 방을 이동하는 3~5초 정도의 행동이 2~3차례 되면 경비실에서 바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 어찌 되었든 밤에 아동의 행동으로 소음을 준 것이기에 ‘죄송하다’고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3월 어느 날 밤 11시 ~ 11시 30분경 보일러가 터져서 관리실에서 와서 봐 주고, 다음날 보일러 교체(첨부4)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소음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매트 설치

- 4월 2~3일 층간소음 매트를 알아본 후, 샘플을 받아보았으며, 4월 6일 층간소음 매트를 구매(첨부5)하여 8일에 거실에 깔게 되었습니다.
- 거실 전부를 깔고 싶었으나 쇼파 앞에, 나무 돛자리 위에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기에(이중으로 깔았음으로 높이 약2cm 정도 됨) 이 부분은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깔지 못하였고, 아동이 뛰고 걷는 주방에서 현관까지를 모두 깔았습니다.
- 각방(총 4개 중 3개)에는 문턱으로 인하여 5mm의 얇은 것을 깔았습니다.
- 단 할머니가 쓰시는 안방은 깔지를 못했습니다. 매트를 밟으면 미끄러워(한 달여 동안 미끄러웠음) 거실에서도 배우자와 어머니가 넘어질 뻔 하기도 하였기에 어머니(당시77세) 방에까지는 깔 수가 없었습니다.
- 둘째 고3 수험생 방에도 2020년 4월~11월까지 깔았었으나 방문이 닫히지 않음과 책상의자 사용의 불편 등으로 치위달라 간청하여,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살살 걷기로 다짐받고 12월 초에 치우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큰아들 방과 부부(막내와 함께 사용)방과 거실(현관 입구부터 주방까지 모두)에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 601호 ○○씨의 701호 직접방문

- 4월4일 토요일 점심시간에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식사 도중 아랫집 601호 ○○씨가 벨을 누르고 찾아와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 언제 시끄러웠냐고 하니 지금 시끄러워서 올라온 거라 하였습니다.
- 저희는 식사 중임과 오전 내내 아이들은 각방에서 수능 관련 공부 하다가 나왔고, 막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기에 오늘 떠들거나 뛰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다른 집의 소음 일수도 있음을 설명 드렸으나, 저희 집에서 난 소리라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 4~5월 경 어느 날 ○○ 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님께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뛰는 소리에 시끄럽다고 하였으며, 어머니는 아이가 (당시)안 뛰었다고 말하니 ○○ 씨는 저의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고, 왜 거짓말을 하나며 예의 없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현관으로 가 어르신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시끄러워서 그러니 이사를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 어이가 없었고, 예의 없는 행동에도 참고 좋은 말로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 관리실(경비실)에서 방문 관련하여:

- 3월 25~27일경~6월 초까지 15회 전후 정도 경비실에서 찾아왔습니다. 이후로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 아동이 할머니 방(장롱·침대·소파 등이 있어서 몇 발자국 밖에 걸을 수 없음) 한번 들어갔다 온 날, 작은형 방(책장·책상·침대·옷걸이 등이 있어 걸을 수 있는 공간 적음)에 들어갔다 온 날 등 아동이 3~5초 정도의 뛰는 행동이 3~4회 반복되는 날에는 관리실에서 찾아왔습니다.
- 간혹 안 오는 날은 다음날 낮이나 저녁 등에 찾아와 '전날 시끄러웠다고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 2021년 설 명절날[2월12일(금)] 낮에도 기존처럼 아이들과 점심 식사 중에 경비실에서 소음문제로 찾아왔었습니다. '명절날인데'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 집에는 기존과 별 차이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 이날 윗집 801호의 소음이 전날부터 심했어서 경비아저씨께 윗층 801호를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경비아저씨는 명절이고 해서 윗집은 가지 않고, 알겠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평소 801호의 층간 소음과 주말, 공휴일은 손주들이 찾아오는지 유독 심하지만 그러려니 하며 저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 601호 가족 및 경찰 방문 관련하여:

- 6월 3일 밤 10시 30분경 601호의 부부가 찾아와 문을 열어주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대화 도중 소음 관련하여, 제가 “오늘요?” 하니
- ○○씨가 ‘어젯밤 10시 30분’이라고 하고, 듣고 있던 남편 ○○씨가 저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2번 때리며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크게 소리 지르고 저를 밀쳤습니다.
- 저는 너무 놀라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면 신고하겠습니다,” 하며 저의 배우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 배우자는 경찰까지 오면 더 시끄러워 질까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후 601호 ○○씨가 경찰에 싸움 났다고 신고하여 경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경찰이 와서 몸싸움을 하셨냐고 묻기에 저는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몸싸움은 없었다고 보호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임을 파악하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 이날 601호 ○○씨는 “아예 소리가 안 나게 하라”는 말을 반복했으며, ○○씨는 “낮에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밤에는~”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이번 싸움이 나면서 당시 601호 ○○씨가 관리실에 신고하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601호에서 14년간 참았다는 말이 다소 의아해집니다.

○ 601호 ○○씨와 관련하여

- 운동기구 소리도 계속 난다고 하여 운동기구는 2018년도에 가져와 그 당시 두세 차례 사용하고 이후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 드립니다.
- 저희 집에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니 안마의자 밖에 없어서 이것 때문인지 체크하기 위해 ○○씨와 함께 601호에 들어가서 안마의자

소리를 들어보았는데 당시 그 집의 김치냉장고 모터 소리가 커서 안마 의자의 진동 소리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배우자는 무조건 9시에 재우겠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은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 ○○씨는 저의 배우자에게 거짓말만 한다는 이야기를 몇 회 했습니다. (예) 아동 뛰는 소리에 시끄럽다->배우자: 오늘 안 뛰었는데요. ->뛰었는데 왜 안 뛰었다고 거짓말하냐고, ○○님(아동 부)도 뭘 것 인정하는데->배우자 : 몇 발자국 걸은 것이 다라고-> 저는 몇 발자국 걸어도 아랫집에서는 뭘 걸로 들을 수 있음으로 ○○씨가 말하면 그냥 인정해주고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방문

- 2020년 10월13일 오전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방문하여 현장 조사 및 중재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층간소음이 저희 집에서도 났겠지만, 다른 집이든 다른 곳에서도 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601호에게도 전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 또한 막내 아동의 순간 뛰는 행동을 제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 안마의자 사용을 하지 말 것에 대해, 5월경부터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II. 층간소음 기록일지 현황 내용에 관하여

- 층간소음 관련 4~10월에 적어 제출한 내용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었나 싶고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음이 100% 저희 집의 소음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일요일에는 저희 가정이 모두 교회를 가며 2020년 5월까지는 오후 3시 40분 이후 귀가하였으며, 첫째와 둘째만 수험생으로 오후 1시 30분경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짐 챙겨 학원이나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바로 나갔습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오후

1시 40분~2시경 가족이 집에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12시 30분~, 오후 1시~ 의 소음들이 과연 저희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의문이 갑니다.

- 소음의 대부분이 운동기구 소리가 많음이 작성되어 있고, 운동기구 소리가 장시간씩 들린 것으로 작성되어 있던데, 601호 ○○씨에게 이야기(6-2) 했지만,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운동기구는 2018년도에 조카에 받았으며 당시 거실에 설치하고 당시 601호에 가서 소음이 나는지 확인했으며, ○○씨는 소리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도 나중에 소리 나면 말씀하시라 했고, 당시 저와 배우자가 낮에 두세 차례 사용하고 이후 사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버리기도 불편하고 조카가 이사 가서 가져가겠다 할지 몰라 옷걸이 용(첨부8)으로 한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저희 집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처음 설치 시 설치하는 기사님께도 소음 관련 물어봤으나 러그 정도 깔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층간소음 매트를 거실에 깔 당시 안마의자 밑에도 깔았기에 (첨부10)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 이후도 안마의자의 소음을 계속 문제 삼기에 2020년 5월 중순 경부터는 밤9시 ~ 새벽6시 까지의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저와 둘째 아들이 하루 한차례 (15~30분)씩 사용하고 있으며, 첫째와 배우자는 가끔씩 낮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III. 기타 사항 - 저희 쪽의 항변 및 의견 내용:

- 기타 사항으로 저희도 항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601호가 처음 이사 왔을 당시 집 을 수리로 한 달여 동안 소음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 리트리버 종류의 큰 개가 이사 오면서 함께 왔고, 몇 년 전까지(현재 개 사망) 밤에 가끔씩 짖는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 또한 당시 둘째는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고, 저의 배우자는 작은 개도 만지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웃이기에 서로 배려하자는 마음으로 넘어갔었습니다.
- 이사 온 초기부터 601호 ○○씨는 가끔씩 배란다에서 담배를 피웠고, 막내가 17년도에 태어나 거실에서 친모와 시간을 보낼 때도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배란다 아래층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와 봄가을 좋은 날씨에도 환기 시간을 제외하고는 창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 주 1~2회 정도 밤 12시 30분경만 되면 현관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와 거실과 방까지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다가 담배 냄새가 나서 깨기도 하였으며, 저도 자다가 방에서 나와 한밤중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곤 하였습니다.
- 배우자는 601호에서 난 건지 다른 사람인지 확인하고자 나가 보려 했으나 말렸습니다. 누가 그랬던지 아파트 주민 일텐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601호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현관(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 저희도 몇 달간 경비실에서 찾아오고, 아랫집 사람들로부터 마주칠 때마다 화내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 저희 아동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이 있었고, 어머니는 당시 77세로 기력도 약하신 상태에서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보약을 챙겨 드셔야 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아동들은 외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함께 겪으며 정서적 고통을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근 ○○로와 ○○역이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단

위 공동주택(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변 사업장이나 도로교통 소음원의 영향이 적은 정온한 환경이다.

나. 당사자 주거 공동주택 현황

- 건 물 명: ○○아파트
- 위 치: ○○구 ○○로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지상20층, 5개동 499세대
- 주 용 도: 공동주택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사용승인: 1998. 12. 9.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층간소음 피해 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 자료 및 현지조사 등 사실조사를 토대로 층간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였다.
 - 측정일시: 2020. 12. 14.(월) 10:57 ~ 12. 15.(화) 10:55
 - 측정기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측정장소: 601호 작은방(신청인 거주)
 - 측정구분: 직접 충격소음 분석
 - 배경소음: 주간 21.4 dB(A), 야간 18.0 dB(A)

○ 측정자료 분석결과

〈표1〉 1분 등가소음도(L_{Aeq})

구 분		주 간 (06:00 ~ 22:00)	야 간 (22:00 ~ 06:00)	비 고
등가소음도 dB(A)	기준	48/1분	43/1분	
	측정일시	12. 14. 21:16	12. 15. 04:51	
	측정치	38 ("드륵"소리, 마찰음)	32 ("쿵"소리, 충격음)	

〈표2〉 최고소음도(L_{AFmax})

구 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비고
최고 소음도 dB(A)	기준	62	초과횟수 (3회/시간)	57	초과횟수 (3회/시간)	
	측정치	58	탁소리, 타격음 (12.14 19:37)	55	바닥충격음 (12.15 00:52)	
		60	쿵쿵소리,충격음 (12.14 20:48)	52	바닥충격음 (12.15 04:25)	
		62	드륵소리, 마찰음 (12.14 21:16)	57	바닥충격음 (12.15 04:51)	

4. 판단

- 당사자 주거 아파트는 1998년 12월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이며,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로,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 비해 층간 슬라브 두께가 달라 소음에 좀 더 취약한 구조이며, 공동생활 공간의 특성상 소음의 전달경로 파악이 쉽지 않는 상황이며
- 또한 당사자 주거지역은 교통소음의 영향이 덜하고 배경소음도가 낮은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낮은 소음도 그대로 층간

으로 전달되는 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는 일정부분의 층간소음을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층간소음도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가 38dB(A), 최고 소음도는 62dB(A)로 측정된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현재 층간소음 분쟁의 대응방법에 있어서 당사자 간 과한 언사 및 행동 등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보다 감정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은 이웃으로 남기 보다는 앞으로의 공동의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보금자리 삶을 위하여
- 피신청인은 위원회 재정회의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효과가 큰 방음매트 보강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러닝머신 폐기 또는 이동조치, 저녁 9시 이후 안마기 사용 금지 하고 저녁 9시 이후 뛰지 않도록 자녀를 훈육하며 신청인은 층간소음이 위층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서류, 현지조사결과, 전문가 의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